“일체 중생 사랑하고 게으름을 멀리하라”

세계고승수계대법회

한국 및 프랑스, 태국, 호주 등 세계 각국 고승 계사로 참여 3만 불자에게 불법 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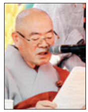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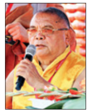
“대규모 수계법회 환희심 난다”

“성내고 어리석고 게으른 마음으로 많은 잘못을 저질렀으니 말과 생각을 가다듬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합니다.”

한국과 세계 각국의 원로스님들이 직접 계를 주는 대규모 법회가 봉행됐다. 세계고승수계대법회가 지난 13일 여수 진남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됐다.

한국 뿐 아니라 프랑스, 태국, 호주에서 활동 중인 원로스님들을 삼사칠증으로 모시고 수계를 받을 수 있는 흔치않은 기회여서 운동장 안은 3만명의 불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이날 법회는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 법원 대종사와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법전 대종사를 증명법사로 의식을 치렀다. 전계대화상에 조계종 전계대화상 고산스님, 갈마아사리에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보성스님, 교수아사리에 원로의원 도문스님이 계사로 나섰다. 전 프랑스불교 협회장인 탐팔라웰라 담마라타나 스님, 태국왕 특사 프라 폼 와치라야 스님,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영신스님, 방글라데시 불교협회장 수다난다 마하테로 스님, 대만불교협회장 명광스님, 티베트 불교 지도자 캄툴 린포체, 몽골 따시초링사 주지 최질자브 담바자브 스님, 호주불교협회 이사 텃폭텐 스님 등도 참석했다.

지난 13일 여수 진남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세계고승수계대법회. 사진 왼쪽부터 이날 계사로 나선 조계종 전계대화상 고산스님, 인도국제불교연맹 창설자 라마 롭장 스님, 수계식에 참석한 신도의 모습.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법회는 송광사 율주 지현스님의 개회선언, 육법공양,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수계법사 등단, 참회진언, 오색 실 관정, 수계첩 증정, 석가모니불 정근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인도국제불교연맹 창설자인 라마 롭장 스님의 지도로 팔리어로 삼귀의와 오계를 염송하는 시간을 가져 의미를 더했다.

이날 전계대화상 고산스님은 오계(五戒)의 의미에 대해 “모든 중생을 사랑하고 보시하는 마음으로 도와주고, 예의와 순결을 지킴으로서 인격을 도야하고 방탕과 게으름을 멀리해야 한다”며 “자신을 청정하게 하는 해탈의 법을 닦으라”는 가르침을 내렸다.

이날 계를 받은 참가자들은 신심 나는 법회였다고 입을 모았다. 스리랑카에서 온 수다 마두갈라(SUDATH MADUGALLE)씨는 “우리나라는 보통 해질 무렵 의식을 치르는데 이번 수계식은 이색적이었다”며 “참가자들이 부처님께 꽃 공양 올리는 모습을 보고 다 같은 부처님의 제자라는 것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박숙희(대구 중구,44)씨는 “이런 대규모 수계법회는 처음”이라며 “마음이 충만하고 환희심이 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법회에는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스님, 원로의원 명선스님, 원명스님, 총무원장 자승스님, 중앙종회의장 보성스님, 화엄사 주지 종삼스님 등도 참석했다.

여수=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불교는 세상의 고통 외면하면 안 된다”

학술포럼

지난 12일 여수 디오션호텔에서 열린 WFB 학술포럼. 사진은 포럼에서 한 외국인 스님이 발표자에게 질문하는 모습. 신재호 기자

브라이언 교수, 일본의 禪불교 국가권력에 협력한 사례 소개 ‘바람직한 종교상’ 성찰

까르마 렉세 소모 등 석학도 참가

“선(禪)이 칼과 결합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많은 지도자급 선사와 학자들은 군국주의에 대해 열정적이었다.”

지난 13일 여수 디오션호텔에서 열린 세계불교도우의회(WFB) 학술포럼에서 브라이언 빅토리아 미국 안티옥 대학교수는 일본불교의 선(禪)은 유혈의 중세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브라이언 교수는 이날 세계적인 선사 스즈키 다이세쓰(鈴木大拙)를 통해 선불교가 어떻게 국가권력과 전쟁에 협력해 갔는지 추적하며 종교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 이야기했다.

먼저 일본불교가 전쟁 때 국가폭력을 정당화 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브라이언 교수는 “스즈키는 불교적 신념에 호소해 러시아 제국과 전쟁에서 일본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내몰도록 부추겼다”며 “전쟁에서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단으로 선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경로가 한 번 정해지면 뒤돌아보지 말라’와 ‘삶과 죽음을 무관심하게 다루어라’는 등의 글을 통해 이론적으로 전쟁을 후원하고 선을 무기화 했다”고 덧붙였다.

브라이언 교수는 이날 과거 불교가 국가주도의 폭력에 동조한 역사를 현대에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불교가 정치에 개입하지 않아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무기력증에 빠진 종교라고 평가했다. 또 불교의 업(業)설을 사회 불평등을 부추기는 가르침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브라이언 교수는 “부처님도 정치가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는 기록이 경전 곳곳에 남아있다”며 “부처님 후손이라면 세계 여러 현안에 관심을 갖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불교는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면 안 되는 종교”라고 피력했다.

브라이언 빅토리아 교수는 현재 미국 안티옥 대학에서 일본 연구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1997년 〈선의 전쟁〉이라는 책을 펴내 미국과 유럽 등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우리나라에는 〈전쟁과 선〉이라는 제목으로 2009년에 발간됐다. 특히 일본어판은 임제종의 전쟁 참회 성명을 이끌어 내는 도화선이 되었다. 한편 이날 학술포럼에서는 미국 샌디에고 대학 교수 까르마 렉세 소모스님이 ‘현대문화에서 불교’, 폴 데이비드 눔릭 교수가 ‘미국 역사 및 문화에 미친 불교의 영향’ 등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여수=홍다영 기자

“한국불교와 폭넓은 교류 하고파”

티베트 망명정부 전 총리 삼동 린포체 인터뷰

티베트 망명정부 전 총리 삼동 린포체(73·사진)가 WFB 한국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달라이 라마를 대신해 한국을 방문했다. 삼동 린포체는 지난 1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불교와의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싶다고 밝혔다. 최근 잇따르는 티베트 스님들의 소신공양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부디 긍정적으로 해결되길 기도한다”고 강조했다.

삼동 린포체는 2001년 민주주의 선거방식에 의해 인도 다람살라 망명정부 초대 수상으로 선출됐다. 2011년 4월 공식적으로 총리직에서 퇴임한 이후 현재 달라이 라마의 외교 특사로 활동하고 있다. 삼동 린포체의 한국방문은 1990년 서울에서 열린 세계불교도우의회 참석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삼동 린포체는 이날 “티베트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안타깝지만, (인도 다람살라 망명정부가) 원인을 제공한 적이 없다”며 “티베트는 중국 관할에 있으므로 이는 중국의 문제이고, 제3자로부터 해결책을 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삼동 린포체는 “WFB는 역사가 오래된 만큼 불자와 불교국가들 간의 교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선(禪)을 체험해 본 적은 없어도 티베트 불교의 사마타 위빠사나와 같이 열반으로 이르는 수행방법으로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불교와 폭넓은 교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중국 불교계 공식 사과하라”

조계종, 中 대표단 철수 입장 발표

조계종이 티베트 대표단의 회의 참석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펼친 중국 불교계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했다.

중국불교대표단은 지난 12일 열린 WFB 총회에서 티베트 대표단의 참석을 이유로 총회 개최 거부를 주장해 태국인 사무총장 팰롭 타이어리 씨가 페마 친졸 종교문화성 장관 등 티베트 측의 퇴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순수한 국제 교류행사가 최소한 존중과 배려조차 없이 일부의 정치적인 입장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 개탄한다”며 “자국의 정치적 입장만을 내세워 WFB 정식 지부로 등록된 티베트 대표단의 참석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중국 대표단의 주장과 행위는 세계 불교계가 추구하고 있는 평화 추구라는 공동의 가치를 스스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 대표단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며 “우리종단과 중국불교계의 건전한 관계를 위해 앞으로 상호관계와 교류를 진지하게 재설정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여수=홍다영 기자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